

최근 기업금융시장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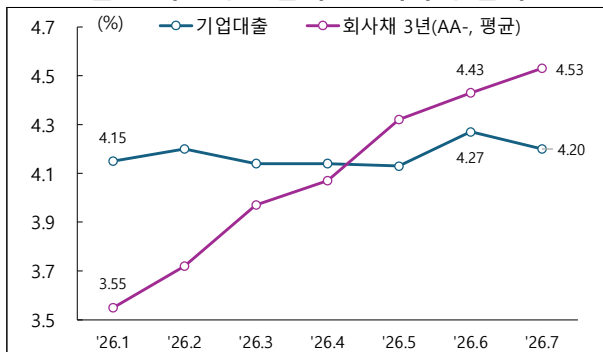
미래전략개발부 정책금융팀
김새롬 (romitheworld@kdb.co.kr)

- ◆ 금리 상승 기조로 회사채 발행이 위축된 반면, 단기사채 발행 및 은행 대출이 증가하는 등 기업의 자금조달 구조 변화
- ◆ 생산적 금융 추진으로 기업부문으로의 자금 공급이 확대되고 있으나, 금리 상승에 따른 기업의 수익성 악화 및 자금조달 여건 제약 우려

□ 금리 상승으로 회사채 발행여건이 악화된 가운데, 단기사채 및 은행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이 확대되는 등 기업의 자금조달 구조 변화

- 기준금리 인상 및 추가 인상 기대 등으로 회사채 금리를 비롯한 시장금리 상승
 - '26.8월 기준금리는 3.00%로 두달 연속 0.25%p씩 인상되었으며, '26.7월 회사채(AA-, 3년) 월평균 금리는 4.53%로 전월 대비 0.10%p 상승
 - '26.7월말 기업대출 금리는 4.20%로 회사채 금리 대비 0.33%p 하회하며, 양금리 간 격차가 전월 대비 확대되는 등 은행대출을 통한 자금조달 유인 증가
- 일반회사채 발행액은 감소한 반면, 단기사채 발행 및 은행의 기업대출은 확대
 - '26년 상반기 일반회사채 발행액은 25.9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.5% 감소한 반면, 단기사채 발행액은 990.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.4% 증가
 - '26년 상반기 기업대출 조달규모는 전년말 대비 49.5조원 증가하여 '25년 상반기 증가액 대비 77.4% 확대

월별 기업대출 금리 및 회사채 금리



자료 : 한국은행, 인포맥스(7월 회사채금리)
주 : 기업대출 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

기업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별 규모 및 증가율

(단위 : 조원, %^{주1)})

수단 ^{주2)}	'22.상	'23.상	'24.상	'25.상	'26.상
일반회사채	21.8 (△29.2)	32.5 (49.1)	33.5 (3.1)	37.8 (12.9)	25.9 (△31.5)
단기사채	642.7 (11.3)	440.2 (△31.5)	397.6 (△9.7)	520.1 (30.8)	990.1 (90.4)
기업대출	59.5 (30.2)	39.8 (△33.1)	49.2 (23.6)	27.9 (△43.3)	49.5 (77.4)

주1 :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

주2 : 일반회사채·단기사채는 기간 중 발행액 기준

기업대출은 전년말 대비 6월말 대출잔액 증감 기준

자료 : 금융감독원, 한국은행

□ 정부의 생산적 금융 추진 기조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되는 가운데, 기업대출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추세

- 정부('25.6월~)는 3대 자금흐름 전환*을 통해 '생산적 자금공급 → 산업·지역 성장 → 국민소득 증대'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생산적 금융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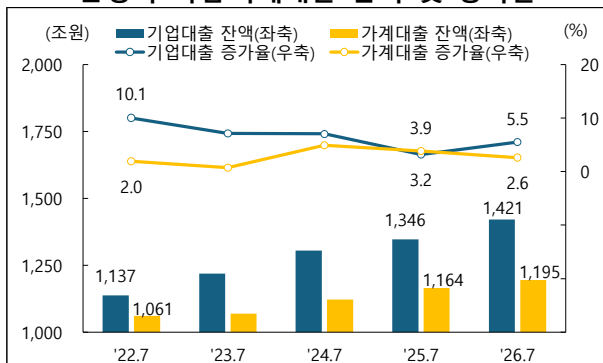
* '부동산 → 첨단·벤처·혁신기업', '예금·대출 → 자본시장 투자', '수도권 → 지방'

- '26.1월부터 향후 5년간 민간금융·정책금융 합산 1,240조원(민간금융 614조원, 정책금융 626조원) 규모의 자금을 생산적 금융에 투입할 계획

- 가계대출 증가율은 둔화되는 반면, 기업대출 증가율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크게 확대되면서 가계 대비 2배 이상 상회

- '26.7월말, 은행대출 잔액은 기업대출 1,421.1조원, 가계대출 1,194.8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5.5%, 2.6% 증가하여 부문 간 증가율 격차 확대
- 기업대출의 경우, 대기업대출 잔액은 12.2% 증가하여 중소기업대출(3.7%) 대비 3.3배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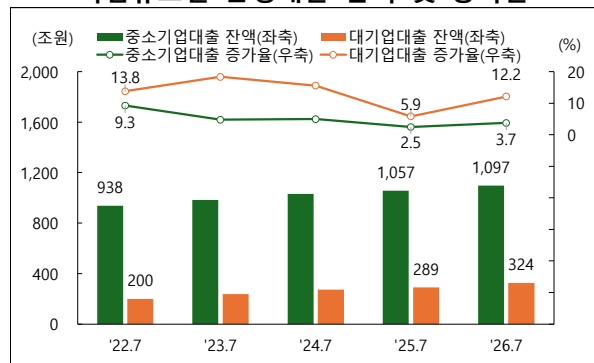
은행의 기업·가계대출 잔액 및 증가율



주 :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

자료 : 한국은행

기업규모별 은행대출 잔액 및 증가율



주 :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

자료 : 한국은행

□ 생산적 금융 정책 추진에 따라 자금흐름이 가계에서 기업으로 전환되는 가운데, 금리상승에 따른 기업의 수익성 저하 및 단기자금 차환 부담 확대 우려 존재

-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기업대출은 확대되는 등 자금흐름 전환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위주로 대출 증가세가 큰 편
-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로 기업 수익성이 저하되는 한편, 단기사채 등 단기조달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차환부담이 확대되는 점은 리스크 요인